

경북 재정지구의 산증인

<3부>'잠녀를 만나다' 한경면 용수리 김두식 할머니 <147>

등록 : 2009년 12월 01일 (화) 18:44:58
최종수정 : 2009년 12월 01일 (화) 18:44:5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김두식 할머니의 삶이 녹아 있는 용수리 바다

노 잠녀의 눈이 반짝인다. 다른 잠녀들에 앞서 좋은 물건을 찾아낸 듯한 생기다. "제주 잠녀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억울한 주장에 맞서 주먹을 쥐었던 여장부의 기개를 세월은 쉽게 뛰어넘을 수 없었다. 용수를 대표하는 김두식 할머니(85)의 이야기다.

용수리 잠녀의 '대장'

제주에서 바다를 낚 마을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과장을 조금 보태 걸음마를 뒀 때부터 바다를 배운다. 용수리에서 나고 자란 김 할머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태어나면서 '을생'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김 할머니가 '두식'이란 이름을 쓰게 된 데는 살기 어려웠던 당시 사회를 반영한다.

김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말(되)로 많이 먹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며 "지금이야 누가 그렇게 부르냐"고 슬쩍 눈을 흘긴다.

용수에서 김 할머니는 '대장 잠녀'로 불린다. 여든을 넘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정정한 목소리에 총명한 기억력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호칭이다.

특히 출가 물질 당시 있었던 일은 김 할머니의 리더십과 기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용수리 잠녀들은 자주 구룡포에 출가물질을 나갔다.

구룡포에는 '지방해녀'라고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잠녀들이 있고 제주에서 출가물질로 간 '출가 잠녀'들이 있었다. 지방해녀라고 해서 그 곳 사람들이 아니라 출가 물질을 갔다가 결혼 등으로 정착한 제주 출신 여성들이 많았다. 대신 지역적인 연고자라는 이유로 조합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았다.

김 할머니는 "지방해녀 물건은 잘 쳐주고 우리(출가 잠녀) 것은 저울 무게를 속여 중량을 훨씬 줄여 계산하는 일도 많았다"며 "같은 제주 출신인데도 더 지독하게 굴었었다"고 회상했다.



김두식 할머니(사진 왼쪽)가 경북 구룡포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제주잠녀 열두 놈에 한 착 먹여

해마다 용수와 고산 지역 잠녀 수십명이 구룡포로 출가물질을 나갔다. 경상북도 각 어업조합은 공동 어장 내의 천초·은행초·맹초의 행사권을 입찰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서 어업조합의 경매 혹은 사업 자금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입찰자, 인술자, 수협에 비율을 나누다보면 잠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미미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열두 놈에 한 착을 (나눠)먹는다'는 말까지 공공연했다. 제주신보는 당시 노동력 착취나 마찬가지로인 제주 잠녀들의 상황 등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는 경북 측이 '제주해녀는 작업할 수 없다'는 억지주장에 맞서 제주 잠녀들을 대신해 6년간 권익 투쟁에 힘썼다.

김 할머니가 35살이 되던 1955년은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시 경북지방 구룡포는 미역돌이나 무미돌을 사고팔았다. 미역돌은 개인에게 입찰을 시키고 미역돌의 주인은 관주(管主)라고 했다.

무미는 수협이 관할하여 공동으로 작업하고 수익 중 일부를 잠녀에게 배당했다. 미역돌을 산 관주는 중간 모집책을 통해 제주에서 출가잠녀를 모았다.

당시 의식있는 인사였던 김종대(경남 출신)·한기주(경북 *)·안정엽(경북 *)·김명오(제주 *) 등은 원주잠녀와 출가잠녀들을 중심으로 노총 산하의 나잠노동조합을 발족하고 잠녀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기사 참조>

어촌계장이던 경북어업연합조합장 최순영은 지방해녀를 두둔하면서 출가잠녀의 대표격인 김 할머니의 작업을 방해했다. 이를 따지는 김 할머니에게 폭력까지 휘둘러 잠녀들에 대한 횡포는 그렇게 법정까지 갔다.

다사다난한 세월

법정 투쟁을 위해 여관을 전전하면서도 김 할머니는 늘 당당했다. 그 배경에는 어머니와 제주 여성 특유의 억척스러움이 있었다.

혼자 출가 물질을 나서기 전 김 할머니는 역시 잠녀였던 어머니를 따라 일본 치바현으로 바깥물질을 나섰었다. 풍선을 타고 원산까지 원정을 나섰던 적도 있다. 차닷배를 빌려 강원도며 경북으로 안 가본 데 없이 다녔다. 19살에는 혼자 일본행 배를 탔다.

김 할머니는 "성질이 강해서 결혼도 늦었고, 남편도 먼저 보냈다"고 말했다. 4·3사건에 남편을 잃고 혼자 딸 둘을 키웠다. 당시에는 드물게 야학에서 한글을 배우기도 했다.

"말로 다 어떻게 지난 세월을 얘기하냐"던 김 할머니의 회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 펴고, 경북에서의 기억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기억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씩씩한 혼잣말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는 제주 잠녀들의 초상과 닮았다.

천초, 은행초, 맹초 등은 수심 200척 내외의 해저 암석에 부착하여 자생하는 1년 초로 그 채취 방법은 나잠, 도수, 간취권이다. 도수나 간취는 수심 5척 이내의 얕은 물에서 가능하나 그 이상의 수심에서는 불가능하여 나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바다어장을 해조류 매수상인 혹은 중간상인에게 그 행사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영세조합원 및 제주도 출가해녀의 자유 채취를 엄금하고 행사권 매수인은 제주도 출신 해녀들을 고용하여 채취케 한 것이다.

또 "지선해녀를 우선 입어케하고 필요한 해녀를 출가해녀 중에서 입어케 한다"라는데, 어조측은 출가해녀는 필요치 않으니 입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실제 이면에는 출가해녀를 입어시키지 않아도 지방해녀 만으로도 충분히 과거와 같이 안건제로 입어시킬 수 있으며 제주도로써도 지방해녀이니만치 간섭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출가해녀도 안건제로 입어시킬 수 있고 관행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1955년경 경북출가 해녀대표 김종대를 선두로 하여 경북, 양남, 감포, 양포, 구룡포, 대보 5개 조합관내에서는 공동어장을 개방하여 해녀채취를 없애고 자유입어가 보장된다는 취지하에 각 관계기관 해녀들을 해방하라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경북재정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1) 제주도 해녀의 자격으로서 경북연안에 제주해녀가 종래 입어한 실적이 있는 공동어장에는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제주해무당국이 입어한 1070명이 입어할 수 있으며 2)공동 어장을 특정인에게 공매하여 이익을 주며 어업조합은 행사료 만을 징수하고 1956년 제주도 출가해녀가 경북 5개 조합 관내에 순조로이 입어되고 공동어장을 공매하는 약속이 없어졌다.

1958년에는 방어진에 출가한 해녀들의 입어료를 작년보다 1천원 인상하여 4천원씩 받고, 경북 입어료는 2할 내지 2할 5푼이다. 또 도 어린 경북출장소까지도 구전을 받고 있었다.

이에 분개한 경북의 김종대씨는 공동어장 매도방지 및 입어료 3천원 고정 책정안을 중요 골자로 하는 탄원서와 청원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회부하기도 했다.

제주신보, 1959년 8월 5일, 1959년 3월 27일 자

▲ 특별취재반

김대생 교육체육문화부장 고 미 편집부 차장 해녀박물관